

가정내 응급처치를 위한 민간요법

강 현 숙*·조 결 자*

I. 서 론

1.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인간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문화는 건강과 질병에 관한 사고와 감정에 깊이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행위와 질병에 대한 반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간호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보건 기구도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예를 들면 전통의술을 일차 보건의료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한(김진순, 1988) 바 있다.

전통의술인 민간요법은 일반 가정에서 민간인들에 의해 오랜 경험으로 효과를 보면서 널리 알려진 민간치료법이고 이는 처방이 까다롭지 않고 약재를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며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누구나 간단히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류상채, 1994; 김남선, 1987) 또한 심리적 지지효과가 장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도 민간요법은 대중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달되는데 합성의약품에 대한 피해가 나타나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약재에 대한 관심이 커져있기 때문에 민간요법은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동의과학원, 1993). 특히 응급처치를 요하

는 상황이나 만성질환에 더욱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요법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되거나 경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민간요법에 대한 치료효과를 밝히고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에서는 이미 민간요법 연구실을 개설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의학 과학 동의학 연구소, 1995)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와 관련된 연구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요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도 주로 응급상황과 만성질환시 이용되는 민간요법의 실태조사 일 뿐(송달옥, 1974; 조갑출, 1984; 남문석, 김경래, 1994; 이은옥, 강현숙 외 2인, 1996) 그 과학성을 규명하려는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이비인후·안·치아 및 피부증상의 민간요법을 연구하여(1997) 약리학적 효능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 민간요법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기증상 이외에 가정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위한 민간요법 중심으로 전통의술의 계승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자가치료인 민간요법 중 응급상황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민간요법의 내용과 사용빈도

* 경희대학교 의대 간호학과

를 파악하고 민간요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저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보통, 구토, 열좌, 식중독, 하혈, 동물에 의한 교상시
이용되는 민간요법의 내용과 사용빈도를 파악한다.
- 2) 보통, 구토, 열좌, 식중독, 하혈, 동물에 의한 교상시
이용되는 민간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2 용어 정의

민간요법 : 민간에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병을 다스
리는 방법을 말하며(이승녕, 1990), 본 연구에서도 질병
에 대한 경험치료적인 방법으로 처방이 까다롭지 않고
재료를 주변에서 구하기 쉬우며, 의사의 지시나 특별한
처방이 없이도 그 재료를 누구나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대
체의료방법을 말한다.

응급처치 : 어떤 환자에서 어떤 손상이나 질병이 생겼
을 때 구급차나 의료진이 도착하기전에 도움을 주거나
처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김형묵, 1995 ; 대한적십자
사, 1995) 본 연구에서는 보통, 구토, 열좌, 식중독, 하혈
과 벌이나 뱀, 개에게 물렸을 때의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에서 하는 처치를 말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임의표출법에 의해 선정한 185명이
였다. 이들은 민간요법 이용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자
로서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자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시 성장지역을 고려하였다. 성장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한 이유는 이용되고 있는 민간요법을 가능한한 많
이 밝히기 위함이었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도구는 일차적으로 성장지를 고려하여 선정한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응급처치로 잘 알

고 있는 민간요법을 얘기하도록 하고 메모하는 형식의
비구조화된 개방식 질문법에 의하여 증상별 민간요법
내용을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총 9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기보고식 또는 면담을 통하여
1998년 5월부터 7월까지 본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
문지 회수율은 100%였으며 그중 불충분한 질문지 15부
를 제외하고 18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빈도는 백분율로 통계처리하였고 민간요법의 내
용의 과학적 혹은 합리적인 근거는 3가지로 구분하여 첫
번째, 약재의 효과등 약리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에 대하
여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이하 "0"로 표기), 두
번째, 약리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 없이 일반 민간요법
의 문헌에 수록된 내용일 경우 과학적 근거가 없으나 합
리적 근거는 있는 것으로(이하 "△"로 표기), 세번째,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이하 "X"로
표기).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여자가 대부분(85.4%)을
차지하였고, 이들의 연령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본적지가 서울인 경우(27.7%)가 가장 많았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N=185

| 특 성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성 별 | 남 | 27 | 14.6 |
| | 여 | 157 | 85.4 |
| 연령(세) | 39 이하 | 34 | 18.4 |
| | 40-49 | 71 | 38.4 |
| | 50-59 | 48 | 25.9 |
| | 60 이상 | 32 | 17.3 |
| 성장지역 | 서울 | 51 | 27.7 |
| | 경기도 | 37 | 20.0 |
| | 강원도 | 9 | 4.9 |
| | 충청도 | 32 | 17.3 |
| | 전라도 | 30 | 16.2 |
| | 경상도 | 24 | 12.9 |
| | 제주도 북한 | 1 1 | 0.5 0.5 |

<표 1> 계속

| 특 성 | 구 분 | 빈도(명) | 백분율(%) |
|-----------------------------------|------------------|-------|--------|
| 교육정도 | 무학 | 30 | 16.2 |
| | 초등학교 | 14 | 7.6 |
| | 중등학교 | 28 | 15.1 |
| | 고등학교 | 35 | 18.9 |
| | 대졸이상 | 78 | 42.2 |
| 종 교 | 없음 | 44 | 23.8 |
| | 기독교 | 92 | 59.7 |
| | 불교 | 49 | 26.5 |
| 민간요법에 관해 주로 알게된 경로 (n=245)* | 경험 | 31 | 12.6 |
| | 가족 | 81 | 33.2 |
| | 이웃 | 39 | 15.9 |
| | 친구 | 18 | 7.3 |
| | 책(신문,잡지) | 43 | 17.6 |
| |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 30 | 12.2 |
| | 기타 | 3 | 1.2 |

* 1가지 이상 응답수

또한 교육정도는 대졸이상(42.2%)과 무학(16.2%)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기독교가 과반수 정도였으며, 민간요법에 관해 주로 알게된 경로는 가족(33.2%)과 신문·잡지(17.6%) 등을 통해서였다(표 1).

2. 가정내 응급상황에 따른 민간요법내용별 사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

가정내 응급상황에서 사용된 민간요법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중 응급상황 이용빈도 순위가 높은 민간요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복 통

배가 아플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간요법의 순위는 「구운돌이나 기왓장을 이용하여 배를 따뜻하게 한다」(29.5%), 「손으로 쓸어준다」(18.9%), 「손가락을 떠다」(18.5%)이다. 그외 이용되는 약재는 육모초(7.9%), 매실, 사과, 페몬이나, 약쑥(각각 2.9%), 파(0.6%), 수세미외(0.4%), 질경이 뿌리(1.1%)가 있었다(표 2). 이들 중 질경이 뿌리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 이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나머지 약재는 약리적 근거가 밝혀진 것들이었다.

배가 아플 때 일반적으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과 배를 쓸어주는 것, 손가락을 떠는 것은 긴장된 복부를 이완시키거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도 하며 심리적인 안정

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배를 문질러 주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전래 육아방식에서도 보는 「엄마손은 약손」이라고 하여 피부자극효과와 심리적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유안진, 1984).

조갑출(1985)의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한 연구결과 북통시 배를 쓰다듬어 주는 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그릇이나 기왓장을 달구어서 배에 얹어주거나 따뜻한 곳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은 열적용이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강현숙, 1990) 흔히 사용된다.

약재에 의한 경우 육모초(익모초)는 지혈, 소염, 진경작용을 하며 육모초씨는 이뇨작용과 혈관을 확장시키며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하고(임중과 임근, 1991), 임상응용으로는 산후출혈, 오로지속, 복통이 있을 때, 월경통, 신염부종, 혈뇨에 사용된다(육창수, 1982).

매실은 각종 질병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피로회복이나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고, 해독작용과 살균작용이 탁월하며(문화방송국편, 1987), 거담, 진해, 지사, 해열작용이 있고, 임상응용으로는 하리와 소화불량, 가슴이나 복부팽만, 회충증의 복통에 이용된다(육창수, 1982). 그러므로 매실쥬스나 매실초를 만들어 구토, 설사, 복통시 하루 1-2 스푼씩 먹으면 효과적이다(최명섭, 1998). 사과도 같이 하루 반개가량 먹거나 매실도 좋다(허준, 1992).

쑥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허복부의 냉과 통증을 몰아내는 식품이며(김양일, 1991) 약재로서 응달에 말린 쑥잎을 달여서 차처럼 마시면 복통에 특효가 있다(동아도서출판부, 1987). 쑥에는 항균작용이 강하여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결핵균, 이질균 등의 발육을 억제시키고 피부진균도 억제한다(안덕균, 1996).

과는 지혈, 진통, 소염작용이 있고(임중과 임근, 1991) 주로 발한해열 작용과 이뇨, 건위, 거담, 항균 항진균 작용을 하여 임상적으로는 발한의 보조약으로 그리고 하리와 배뇨곤란, 복부팽만, 복통에 이용한다(육창수, 1982). 그리고과는 3센티미터 정도로 썰어서 기름에 데친다음, 형질에 써서 찜질하면 통증이 멎으며(허준, 1992), 쑥으로 즙을 내어 마셔도 좋다.

쑥세미외는 거담, 거풍통락(祛風通絡), 활혈소종(活血消腫), 이뇨, 해독, 해열작용이 있고 임상응용으로는 기관지염, 폐렴 등의 폐염에 의한 기침에 사용하고 열좌에 의한 종창, 동통, 풍습에 의한 관절통, 근육통, 특히 급성발한으로 인한 국부의 종창동통, 뇨량감소에 이용

하며(육창수, 1982), 수세미외로 만든 재를 술과 함께 복용하면 낫는다(허준, 1992)고 하여 본 조사결과와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이외에 문헌에서 밝히지 못한 내용으로 「소다나 갈분을 복용한다」(5.0%), 「소금/간장을 탄 물을 마신다」(3.3%), 「질경이 뿌리를 썰어 즙을 내어 마신다」(1.1%) 등이 있었다.

<표 2> 복통의 민간요법 이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배를 따뜻하게 한다 | 142 | 29.5 | ○ |
| 손으로 쓸어준다 | 91 | 18.9 | ○ |
| 손가락을 댄다 | 89 | 18.5 | ○ |
| 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 23 | 4.8 | ○ |
| 육모초를 달여서 먹는다 | 38 | 7.9 | ○ |
| 매실, 사과, 레몬을 먹는다 | 14 | 2.9 | ○ |
| 약쥬를 즙내어 마신다 | 14 | 2.9 | ○ |
| 파를 썰어서 기름에 데친 형질에 싸서 찜질한다 | 3 | 0.6 | ○ |
| 수세미외로 재를 만들어 술과 복용한다 | 2 | 0.4 | ○ |
| 소다나 갈분을 복용한다 | 24 | 5.0 | × |
| 소금/간장을 탄 물을 마신다 | 16 | 3.3 | × |
| 담배를 피운다 | 8 | 1.7 | × |
| 묵은 김치국물을 마신다 | 8 | 1.7 | × |
| 질경이 뿌리를 썰어서 즙을 내어 마신다 | 6 | 1.1 | × |
| 기타 | 4 | 0.8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422*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2) 구 토

구토증상이 있을 때 「동치미 국물을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6.2%), 그 다음은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내는 방법」(28.1%)이었으며, 소금이나 된장, 간장(14.5%) 쭈뿌리(7.1%), 매화꽃(2.7%), 부추즙과 생강즙(1.6%), 꽃감(1.6%)이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표 3). 이들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조사결과와 동치미 국물, 소금이나 된장, 간장은 수분, 전해질 교정에, 쭈과 부추, 생강은 진토, 해독작용으로, 꽃감은 건비(建碑)와 수렴작용, 매화나무의 열매인 매실은 삼장(滯腸), 생진(生津), 안회(安蛔), 소염, 지사, 항균작용등에 의한 근거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감초, 가지뿌리는 구토와 관련된 문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구토를 하면 신체에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이 오기 쉬운데(김형목, 1995) 동치미 국물과 소금이나 된장, 간장을 탄 물은 이런 불균형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며 손을 따는 것은 경혈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근거있는 방법이다.

본 조사에서 쭈뿌리의 즙을 내어 먹는다고 하였는데(7.1%), 쭈은 특히 회충의 자극으로 토할 때 짓쭈어 즙을 내어 단번에 한컵가량 먹으며(임중과 임근, 1991), 음식을 저녁에 토할 때 혹은 무더운 여름날의 더위를 먹고 구역이 나면서 토할 때 사철쭈을 이용하는데 사철쭈 20g에 물 60ml을 넣고 30ml가 되도록 달여서 한번에 다 먹거나(의학과학원 동의학 연구소, 1990) 구토가 심할 때 쭈즙을 마시면 낫는다(동아도서 출판부, 1987)고 하였다. 부추생즙 1공기에 생강즙을 약간 넣어 마시는 방법도(1.6%) 근거있는 방법이었다. 즉 음식을 먹고 체했거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을 자주 토할 때 짓쭈은 부추뿌리 500g에 물 500ml를 넣고 달인 다음, 여기에 약간 단맛이 나도록 설탕을 넣고 잘 섞어서 한번에 150ml씩 하루에 세 번 먹거나 음식 먹은 것이 소화되지 않으면서 토하거나 헛구역질을 하면서 손톱이 올라오거나 토할 때 생강 50g을 물 한사발에 넣고 농도가 70%되게 달여서 한번에 100-150ml씩 하루에 두 번 먹거나 빈속에 먹는데 증상이 멎지 않으면 다시 반복해서 먹는 것이 좋다(임중과 임근, 1991). 동의보감에서도 부추생즙 1공기에 생강즙을 약간 넣어 마시면 특효가 있다고 하였다(허준, 1992).

<표 3> 구토의 민간요법 이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동치미 국물을 먹는다 | 67 | 36.2 | ○ |
|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낸다 | 52 | 28.1 | ○ |
| 소금, 된장, 간장을 탄 물을 마신다 | 25 | 14.5 | ○ |
| 쭈뿌리를 즙내어 먹는다 | 13 | 7.1 | ○ |
| 그늘에 말린 매화꽃을 가루내어 복용한다 | 5 | 2.7 | ○ |
| 부추생즙 1공기에 생강즙을 약간 넣어 마신다 | 3 | 1.6 | ○ |
| 꽃감과 밥을 말려서 만든 가루를 같은 양으로 반죽하여 먹는다 | 3 | 1.6 | ○ |
| 감초 삶은 물을 마신다 | 5 | 2.7 | × |
| 야생가지 뿌리를 생즙내어 먹는다 | 3 | 1.6 | × |
| 기타 | 9 | 5.4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185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구토시 본 조사에서 「꽃감과 밥을 말려서 만든 가루를 같은 양으로 반죽하여 먹는다」(1.6%)고 하였는데 꼭지가 붙어있는 꽃감 3개를 찢어 술에 넣어 먹으면 신효하며, 만성 구토증에 꽃감과 밥을 말려서 만든 가루를 같은 비율로 함께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 매일 먹되 물을 마시지 않고 먹어야 한다고 하여(허준, 1992) 본 조사 결과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구토시 「감초 삶은 물을 마신다」, 「야생 가지뿌리를 생즙내어 먹는다」에 관한 합리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3) 열 좌

베었을 때 이용하는 민간요법으로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찜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5.5%), 다음은 「치자를 물에 담갔다 밀가루로 반죽해 환부에 붙인다」(14.3%)고 하였으며, 그밖에 무나 감자(10.8%), 우슬초(0.9%) 등의 약재 이용이 있었다(표 4).

이에 관한 약리작용이나 문헌에 의한 민간요법과의 비교에서 찬물이나 얼음찜질은 진통과 해열, 부종제거의 효과를(강현숙, 1990), 치자, 무나 감자, 우슬초는 해열내지 지열, 소염, 소독, 진통효과를, 말오줌대(접골목)는 지통, 활혈 효과에 의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며, 선인장, 생지황, 비파나무도 통증과 부기를 감소시킨다(육창수, 1982; 최명섭, 1998)고 하여 열좌치료에 과학적인 근거를 보여주었다.

본 조사에서 약재가 식물이면서 약리적 효과가 있었던 내용으로는 「치자떡」으로서 치자열매를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밀가루와 함께 물로 반죽하여 환부에 붙인다. 이는 발열과 종창, 발적이 심할 때 사용하며 밀가루를 쓰는 것은 접착제의 역할뿐이며 해열효과는 미약하다고(안덕균, 1996) 하였고, 타권, 열좌등에 치자 분말을 소맥분과 계란흰자에 이겨서 습포한다고(육창수, 1982) 하였다.

또한 「무나 감자를 갈아 붙인다」(10.8%)고 하는 경우 무 즙을 내서 먹으면 지열, 소독, 해열이 되며(동아도서 출판부, 1987), 생감자를 곱게 갈아서 환부에 붙이면 부종과 열이 내리고 통증이 없어지며 약리적으로 감자의 효능은 미약하지만 해열, 소염작용과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다(안덕균, 1996; 의과학원 도의학연구소, 1990)고 하여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우슬초(쇠무릎 나무)는 진통, 진경, 강압작용이 있으며, 요퇴부의 통증, 특히 신허, 풍습, 타권, 열좌 등의 원인을 가리지 않고 요퇴등에는 우슬을 우선 사용한다(육창수, 1982). 그밖에 고관절염, 무릎관절염, 골격과 근

육에 힘이 약해지고 굴신이 자유롭지 못하며, 보행장애와 지속적인 동통에도 다른 약물과 배합하여 큰 효력을 나타낸다(안덕균, 1996). 말오줌대(접골목)는 거풍(擧風), 이혼(利混), 활혈(活血), 지통(止通)작용이 있고(육창수, 1982), 비파나무는 독충이나 뱀에 물렸을 때 이용하면 통증과 부기가 없어진다(최명섭, 1998)고 하였으며, 생지황은 지혈, 강심, 이뇨, 혈당강하 작용이 있으며, 임상응용으로 열성 질환에 사용하고 관절염시 생지황 90g에 600-800ml의 물을 넣어 1시간 끓여서 약액 300ml를 1-2회로 나누어 복용하면 통증과 종창을 경감시킨다(육창수, 1982). 열좌증상완화에 효과적인 과학적 근거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선인장의 가시와 껍질을 제거하고 짓뭉어 95% 알콜을 약간 섞어 환부에 붙이면 완치할 수 있다(최명섭, 1998)고 하여 비파나무와 생지황, 선인장은 관절염이나 기타 통증의 완화제로 이용되고 있다. 그밖에 문헌으로 밝히지 못한 내용으로는 「겨자떡을 바른다」, 「쌀겨나 물과 식초를 섞어서 환부에 바른다」, 「아주까리를 찢어 붙인다」, 「파리열매 즙을 바른다」 등이 있었다. 조갑출(1985)의 연구결과 「찬물에 담구고 주무르는 것」(31.7%)이 가장 많았던 것과 「치자물에 생콩가루를

<표 4> 열좌의 민간요법 내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찜질을 한다 | 113 | 35.5 | ○ |
| 치자를 물에 담갔다 밀가루로 반죽해서 환부에 붙인다 | 45 | 14.3 | ○ |
| 무나 감자를 갈아 붙인다 | 34 | 10.8 | ○ |
| 선인장을 찢어서 붙인다 | 26 | 8.2 | ○ |
| 우슬초를 달여 먹는다 | 3 | 0.9 | ○ |
| 말오줌대(접골목)의 잎과 줄기를 달여서 환부에 낸다 | 2 | 0.6 | ○ |
| 비파나무를 담가 놓았던 알콜을 바른다 | 2 | 0.6 | ○ |
| 생지황을 찢어서 밀가루에 반죽하여 붙인다 | 13 | 4.1 | ○ |
| 겨자에 밀가루를 섞어 상처 부위에 바른다 | 32 | 10.1 | × |
| 사골을 고아 마신다 | 22 | 6.9 | × |
| 식초와 풀 또는 식초와 쌀겨를 찌서 붙인다 | 8 | 2.5 | × |
| 상골과 구리쇠를 달여 먹인다 | 6 | 1.9 | × |
| 아주까리를 찢어서 붙인다 | 3 | 0.9 | × |
| 밀가루에 파리열매 즙을 섞어 바른다 | 3 | 0.9 | × |
| 회금자 열매를 볶아 말려 가루를 내어 먹는다 | 3 | 0.9 | × |
| 기타 | 3 | 0.9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238 | 100.0 | |

○ - 과학적 근거 있음

× -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반죽하여 붙이는 것(30.3%)이 다음 순위를 차지한 것은 본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4) 식중독

식중독시 검은 콩과 감초를 달여마시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3.1%), 다음은 녹두를 먹는 경우(18.2%)와 토하고 된장물을 마시는 경우(13.9%)의 순이었다(표 5).

식중독시 민간요법이라고 답한 내용중 근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약재는 콩과 감초, 녹두, 및 복숭아이다. 먼저 식중독시 「콩과 감초를 달여서 마신다」고 하였는데(23.1%), 제비콩의 작용은 복통을 멎게하고 복부팽만, 파상풍, 적리, 하혈, 설사, 주독, 이물중독을 해독시킴으로 콩을 탈 정도로 볶아서 가루내어 한 번에 한술가락씩 하루에 4-5회 꿀물에 타서 빈속에 마시면 효과가 있다(의과학학원 동의학 연구소, 1990)고 하였다. 그리고 감초는 주로 쇠고기를 먹고 중독된데 쓰이는데 감초는 해독, 해열, 진정, 통증방지에 효능이 있고(최명섭, 1998) 감초를 잘게 썬 것 30g에 물 500ml를 넣고 달여서 300ml가 되면 찌꺼기는 버리고 약물을 다시 30분간 달여서 두번에 나누어 마신다(의과학학원 동의학 연구소, 1990)고 하였다. 녹두는 농약중독, 납중독, 가스중독, 부자중독, 화약중독 등에 대해 해독작용을 하며 특히 몸에서 열이 나고 갈증을 일으키며 소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에 해열, 해독을 한다(안덕균, 1996).

복숭아 씨는 진통, 소염, 해독, 통변 작용이 있다(육창수, 1982). 식중독시 시간이 오래 경과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 토하게 하며 독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토하게 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약리적인 근거는 없으나 민간요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문어를 달여먹는다」(5.6%)와 「끓인 물에 참기름을 한술가락 타서 먹는다」(6.3%)고 하였는데, 문어는 쇠고기 먹고 체했을 때 문어 100g에 물 한사발을 붓고 1시간 동안 끓여서 그 물을 한번에 50ml씩 하루에 3번 공복에 마신다고 하였다. 이는 오랜 효과가 있어 널리 쓰이고 있는데 아마도 문어에는 쇠고기만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안덕균, 1996).

참깨를 생으로 잔 기름은 약으로 쓰이는데 중독을 풀어주고 더러운 열기와 독기를 내리게 하며, 대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특히 독버섯을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참기름을 한번에 100-150g씩 하루에 세번 밥먹기 전에 먹는다(의과학학원 동의학 연구소, 1990)고 하였다. 그러나, 부추즙, 소금, 마늘주를 먹는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문헌을 찾지 못하였다.

<표 5> 식중독의 민간요법이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 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검은 콩과 감초를 함께 달여 마신다 | 33 | 23.1 | ○ |
| 녹두를 먹는다 | 26 | 18.2 | ○ |
| 토하고 된장물을 마신다 | 20 | 13.9 | ○ |
| 복숭아를 껍질째 먹는다 | 9 | 6.3 | ○ |
| 끓인 물에 참기름을 한술갈 타서 먹는다 | 9 | 6.3 | △ |
| 문어를 달여 먹는다 | 8 | 5.6 | △ |
| 부추즙을 먹는다 | 17 | 11.9 | × |
| 소금을 먹는다 | 15 | 10.5 | × |
| 마늘주를 마신다 | 4 | 2.8 | × |
| 기타 | 2 | 1.4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143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효과적이라는 문헌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5) 하혈

하혈시 연근을 달여 먹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2.3%), 다음은 흰 닭속에 백도라지를 넣어 삶아 먹는 경우(14.6%)와 접시꽃 뿌리를 달여 먹는 경우(13.8%)의 순이었다. 조사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는 「지팡나무(촉백나무)를 달여 먹는다」(4.6%)인데 이것은 양혈제, 자궁출혈, 치출혈, 비혈 등의 지혈제로 쓰이기 때문(육창수, 1993)이다.

그리고 약리작용은 증명되지 않았으나 효과있는 민간요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본 조사에서 「연근을 달여 먹는다」(32.3%)고 하였는데 이와 동일하게 연근의 즙을 물 2홉으로 달여서 마시면 효과가 있으며 특히 산후에 피가 멎었을 때의 처방으로 좋고(동아도서 출판부, 1987) 만일 연꽃뿌리가 없으면 연꽃이나 연꽃잎, 줄기를 달여서 써도 좋으나 뿌리보다 효과가 적으므로 연꽃뿌리의 즙을 내어 먹는 것이 좋다(의과학학원 동의학 연구소, 1990).

또한 「잉어 한마리와 현미 한되에 된장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13.1%)고 하였는데 잉어는 부종을 제거하는 약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안덕균, 1996), 동의보감에도 유산을 했을 때 잉어 1마리와 현미 1되에 된장을 넣고 죽을 쑤어 1일 1회씩 먹는다(허준, 1992)고 하여, 합리적 근거있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하혈시 오골계 알 3개를 식초반되, 술 2되에 풀어서 1되 되도록 줄여 4회에 나누어 마신다」(6.2%)고 하였는데 이

는 동의보감(허준, 1992)의 내용과 동일하였다. 본 조사에서 녹각을 태워 가루내어 복용한다(5.4%)는 내용은 녹각 1돈중을 물을 붓고 진하게 다려서 1-2회에 나누어서 마시면 특효가 있다는 문헌이 지지하였다(동아도서 출판부, 1987). 그러나 구체적으로 볼 때 녹각의 재료는 동일하나 태우거나 다리는 조제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밖에 「흰 닭속에 백도라지를 넣어 삶아 먹거나, 「접시꽃 뿌리를 달여 먹는다」고 한 내용은 하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며, 고노대가시나무와 목화다래 등에 관하여는 관련 문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표 6〉 하혈의 민간요법 이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 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지팡나무를 달여 먹는다. | 6 | 4.6 | ○ |
| 연근을 달여 먹는다. | 42 | 32.3 | △ |
| 잉어 한 마리와 현미 한되에 된장을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 | 17 | 13.1 | △ |
| 오골계 알 3개에 식초 반 되, 술 2되를 풀어서 4회에 나누어 마신다. | 8 | 6.2 | △ |
| 녹각을 태워 가루내어 복용한다. | 7 | 5.4 | △ |
| 흰닭속에 백도라지를 넣어 삶아 먹는다. | 19 | 14.6 | × |
| 접시꽃 뿌리를 달여 먹는다. | 18 | 13.8 | × |
| 베베꽃을 달여 먹는다. | 4 | 3.1 | × |
| 목화다래를 삶아 먹는다. | 3 | 2.3 | × |
| 고노대 가시나무를 삶아 그 물을 마신다. | 2 | 1.5 | × |
| 기타 | 4 | 3.1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130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효과적이라는 문헌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6) 뱀에 물렸을 때

뱀에게 물렸을 때 이용되는 민간요법으로는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피를 빨아내는 것」(51.6%)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백반가루를 바르는 것」(20.0%)이었다. 그밖에 돼지고기, 앵두나무잎, 감즙, 호박꽃의 이용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이 문헌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뱀에 물리면 우선 물린곳보다 가슴부위에 가까운 곳을 묶고 뱀에 물린 상처 부위에서 독을 빨아내야 함은 당연하므로(이은옥과 박영숙, 1987) 본 조사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밖에 본 조사결과와 민간요법에 관한 문헌이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물린 자리에 생고기를 붙여준다」, 「호박꽃을 찢어 붙이거나 탕으로 만들어 씻으며, 꽃뿐 아니라 줄기와

덩굴을 짓이겨 그 물을 발라도 효과가 있다」, 「앵두나무 잎 5, 오이꽃 4, 복숭아꽃 1의 비례로 섞어서 짓찧은 것을 붙이거나, 그 즙을 먹는다」(의과학원 동의학 연구소, 1990) 또는 「감의 즙을 내어 바르면 좋다」고 하였다(동아도서 출판부, 1987). 그러나 「백반가루를 바른다」, 「된장을 바른다」 등은 관련 문헌을 찾지 못하였다.

〈표 6〉 뱀에 물렸을 때의 민간요법 이용빈도 및 합리적 근거 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입 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피를 빨아낸다. | 116 | 51.6 | ○ |
|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 6 | 2.7 | △ |
| 호박꽃을 달여 그 물로 자주 씻는다. | 2 | 0.9 | △ |
| 앵두나무 잎을 찢어 붙이거나 즙을 내어 마신다. | 2 | 0.9 | △ |
| 뽕은 감즙을 바른다. | 2 | 0.9 | △ |
| 백반가루를 바른다. | 45 | 20.0 | × |
| 된장을 바른다. | 29 | 12.9 | × |
| 흙을 먹는다. | 10 | 4.4 | × |
| 백편을 먹는다. | 4 | 1.8 | × |
| 사슴의 살을 도려내어 독을 빨아들인다. | 4 | 1.8 | × |
| 개구리로 물린 부위를 문지른다. | 3 | 1.3 | × |
| 참쌀 흰죽을 붙인다. | 0.4 | × | |
| 기타 | 1 | 0.4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225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효과적이라는 문헌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7) 벌에 쏘였을 때

벌에 쏘였을 때 민간요법으로 「침을 빨고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2.5%), 다음은 「침을 바르는 경우」(22.4%)와 「냉찜질을 하고 약을 바르는 경우」(19.3%)의 순이었다. 된장의 이용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서 된장은 열을 내리면서 독성을 풀어주기 때문에 치유효과를 보고 또한 살균작용으로 간접적인 효력을 얻는다(안덕균, 1996). 다음은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민간요법에 관한 문헌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으로는 들깨잎과 토란잎, 콩잎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독충에 물렸을 때 들깨기름을 바르면 독을 제거하는데 기름이 없을 때는 날개를 섞어서 붙여도 효과적이다(동아도서 출판부, 1987). 그리고 뱀이나 독한 벌레에 쏘이거나 물렸을 때 토란 잎과 줄기를 뜯어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찢어 두껍게 편을 만들어 물린 자리

에 두툼하게 붙여도 좋다(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 1990)고 하였다. 그밖에 침을 바르거나 식초를 바르는 방법에 관하여는 관련 문헌을 찾지 못하였다.

〈표 8〉 벌에 쏘였을 때의 민간요법이유효빈도와 합리적 근거유무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침을 뽑고) 된장, 간장을 바른다. | 108 | 42.5 | ○ |
| 들깨잎을 잘 찢어서 붙인다. | 7 | 2.8 | △ |
| 토란잎으로 문지른다. | 4 | 1.6 | △ |
| 콩잎으로 즙을 내어 바른다. | 3 | 1.2 | △ |
| 침을 바른다. | 57 | 22.4 | × |
| 냉찜질을 하고 약을 바른다. | 49 | 19.3 | × |
| 식초를 바른다. | 18 | 7.1 | × |
| 기타 | 8 | 3.1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254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효과적이라는 문헌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8) 개에게 물렸을 때

개에게 물렸을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민간요법은 「개털을 태워서 기름에 개어 바른다」(62.8%)였으며 다음은 「된장이나 간장을 바른다」(23.9%)였다.

조사내용중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방법으로는 도꼬마리 잎이나 줄기의 생즙을 바르는 것(2.2%)으로서 도꼬마리는 발한, 진통, 항균, 소염작용이 있으며(육창수, 1982), 방법으로는 도꼬마리 풀의 연한 잎을 짓찧어 즙을 내서 술이나 물을 같은 양씩 넣고 달인 것을 따뜻하게 하여 한번에 한두잔씩 하루에 두세번씩 먹으며 동시에 즙을 물린 자리에 발라주면 더 좋다(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 1990).

다음으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민간요법에 관한 문헌에서 조사결과와 일치한 내용으로는 「행인을 찢어 밀가루에 개어바른다」(1.5%)고 하였는데 감초를 달여 먹고, 동시에 살구씨의 얇은 껍질과 두 알짜리, 뽕죽한 끝은 버리고 속살과 설탕을 같은 양씩 섞어서 짓찧어 물린 자리에 붙인다(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 1990)고 하였다. 그러나 「개털을 태워서 (참)기름에 개어서 바르거나」(62.8%)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는 것」(23.9%)과 「명아주 잎을 생즙내어 바르는 방법」(2.9%)은 관련 문헌을 찾지 못하였다.

단지 명아주 잎(능쟁이)은 독충에게 물렸을 때나 벌에게 쏘였을 때 그 즉시 명아주 잎과 줄기로 쏘인 자리를

문지르거나 짓찧어 붙이며, 또는 삶은 물에 상처를 담가 두거나 자주 씻어주면 독기가 빠진다고(의과학원 동의학연구소, 1990)고 하였고 「된장이나 간장을 바르는 것」은 벌에 쏘였을 때와 같이 독성을 풀어주고 간접적인 살균효과(안덕균, 1996)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서양의 학에서는 개방된 상처에 간장·된장을 바르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들은 개에게 물린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경기, 경상도 지역에서 개에 물렸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개털을 태워서 참기름에 바르는 방법」으로서(조갑출, 1985) 본 조사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9〉 개에게 물렸을 때의 민간요법 이용빈도 및 합리적인 근거 (N=185)

| 내 용 | 빈도 | 백분율 | 근거 |
|----------------------------|-----|-------|----|
| 도꼬마리 잎이나 줄기의 생즙을 바른다. | 3 | 2.2 | ○ |
| 행인을 찢어 밀가루에 개어 바른다. | 2 | 1.5 | △ |
| 개털을 태워서 (참)기름에 개어서바른다. | 84 | 62.8 | × |
| 된장이나 간장을 바른다. | 32 | 23.9 | × |
| 개의 주인집 김치로 상처를 싸맨다. | 6 | 4.5 | × |
| 명아주 잎을 생즙내어 바른다. | 4 | 2.9 | × |
| 그 개의 주인집에 가서 누른 밥을 갖다 먹는다. | 3 | 2.2 | × |
| 계 (1개이상 응답수임) | 134 | 100.0 | |

○-과학적 근거 있음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효과적이라는 문헌 있음

×-과학적 혹은 효과적 증명자료 없음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가정내 응급처치 내용 중 복통, 구토, 염좌, 식중독, 하혈, 뱀과 벌, 개에게 물렸을 때 흔히 행하는 민간요법의 내용과 이용빈도 그리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1998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18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문지를 자가보고 또는 면담법에 의해 자료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빈도는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민간요법의 내용은 문헌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밝혔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복통시 이용되는 민간요법의 순위는 「배를 따뜻하게 한다」와 「배를 손으로 쓸어준다」, 「손가락을 만다」, 「손,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다」, 「육모초를 달여서 먹는다」, 「매실, 사과, 레몬을 먹는다」, 「약썩을 즙내어 마신다」, 「과를 썰어서 기름에 데친 형겅에 싸

서 찻질한다», 「수새미 외로 재를 만들어 술과 복용한다」순이며, 이들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 2) 구토시 이용되는 민간요법의 순위는 「동치미 국물을 먹는다»,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낸다», 「소금이나 된장, 간장을 탄 물을 마신다», 「쭉뽀리를 즙내어 마신다」순이며, 이들 민간요법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 3) 염좌시 이용하는 민간요법의 이용빈도 순위는 「찬물에 담그거나 얼음찜질을 한다», 「치자를 물에 담갔다가 밀가루로 반죽해서 환부에 붙인다», 「무나 감자를 갈아 붙인다», 「선인장을 찢어 붙인다」순이며, 이들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었고, 「우슬초를 달여 먹는다», 「말오줌대의 잎과 줄기를 달여서 환부에 댄다», 「비파나무를 담가 놓았던 알콜을 바른다」도 사용빈도가 낮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이었다.
- 4) 식중독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간요법은 「검은콩과 감초를 함께 달여 마신다», 「녹두를 먹는다», 「토하고 된장물을 마신다」의 순이었고 이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
- 5) 하혈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연근을 달여 먹는다», 「흰 닭속에 백도라지를 넣어 삶아 먹는다」이었으나,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는 「지광나무를 달여 먹는다」이었다.
- 6) 뱀에 물렸을때 이용하는 민간요법 중 과학적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는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피를 빨아 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거가 전혀 없는 백반이나 된장을 바르는 경우도 많았다.
- 7) 벌에 쏘였을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간요법은 「침을 뽑고 된장이나 간장을 바른다», 「침을 바른다」순이었으며 그중 「침을 바른다」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 8) 개에게 물렸을 때 이용하는 민간요법 중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내용으로는 「도꼬마리 잎이나 줄기의 생즙을 바른다」였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개털을 태워서 (찜)기름에 개어서 바른다», 「된장이나 간장을 바른다」라는 민간요법을 이용한 빈도(86.7%)는 매우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응급상황에서 민간요법으로 이용되는 약재는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중 일부약재는 약리작용이 밝혀져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민간요법으로 볼 수 있으나 대다수는 각 약재의 약리작용이 밝혀지지 않고 단지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특히

식물성 약재 이외의 것은 그것의 성분이나 기전 등이 문헌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아 효과도 모르는채 이용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민간요법에 관한 대상자 교육과 상담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민간요법은 계속 연구하여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현숙 (1990). 열·냉요법. 대한간호, 29(2), 16-22.
- 김남신 (1987). 한국 일부지역 농촌인의 질병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일 (1991). 쉽게 풀어쓰는 신 민간요법. 서울: 태웅출판사.
- 김진순 (1998). 주민의 전통의술 이용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김형목 (1995). 응급처치매뉴얼. 서울: 고려의학.
- 남문석, 김경래 (1994). 당뇨병 민간요법의 실태. 제8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연수강좌 요약집.
- 대한적십자사 (1995). 응급처치. 대한적십자사.
- 동아도서 출판부 (1987). 현대병의 원리와 무공해 자연치료식품. 서울: 동아도서.
- 동의과학원 (1993). 가정동의대전. 서울: 여강출판사.
- 류상채 (1994). 기적의 민간요법. 서울: 건강 다이제스티브.
- 문화방송국편 (1987). 한국민간요법대전. 서울: 금박출판사.
- 송달옥 (1974). 일부농촌지역의 민속의료 이용에 관한 조사. 공중보건잡지, 11(1), 35-37.
- 안덕균 (1996). 민간요법. 서울: 대원사.
- 유안진 (1984).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창지사.
- 육창수 (1982). 한약의 약리, 성분, 임상응용. 서울: 계축문화사.
- 의학과학원 동의학연구소 민간요법연구실 (1990). 한국의 민간요법. 서울: 가서원.
- 이은옥, 강현숙 외 3인 (1997). 관절염환자의 민속요법 이용형태. 간호학논문집, 11(1), 1-12.
- 이은옥, 박영숙 (1987). 응급환자. 서울: 수문사.
- 임중, 임근 (1991). 민간요법, 건강학. 서울: 일월서각.
- 조갑출 (1985). 한국의 전통적 가정간호에 관한 탐색적 연구(II). 적십자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7, 181-203

조결자, 강현숙 (1997). 이비인후·안·치아 및 피부증상의 민간요법. 동시간호연구지, 1(1).

최명섭 (1998). 약용식물을 이용한 지혜로운 치료법. 서울: 경원.

허준 (1992). 동의보감. 서울: 경화사.

— Abstract —

Folk Remedies for First Aid at Home

Kang, Hyun Sook · Cho, Kyoul Ja**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contents, frequency of use, and the rationales of folk remedies frequently used for first aid at home for stomachache, vomiting, strain, food poisoning, vaginal bleeding, or wounds of snake or dog bite, or bee sting.

As the method of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of 185 persons, who filled it out or who were interviewed from May to August in 1998.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d the rationales for the contents of the folk remedies were described base on litera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folk remedies for stomachache in frequency order were 'warming the abdomen', 'rubbing the abdomen with a hand', or 'pricking a finger to bleed', which have the rationales.
2. The folk remedies for vomiting in frequency order are 'drinking water of watery radish' and 'pricking a finger to bleed', which have the rationales.
3. The folk remedies for strain in frequency order are 'soaking the affected area into cold water or applying an ice pack' and 'after soaking jasmine in water, making a dough with flour, and then attaching it on the affected area', which have the rationales. Additionally, although the frequencies are low, 'drinking brewed *Achyranthis Radix*' and 'applying brewed leaves and stalks of *Sambuci*

Cortex' have the rationales.

4. The folk remedies for food poisoning in frequency order are 'drinking black beans and licorice brewed together' and 'eating mung beans', which have the scientific grounds.
5. The folk remedies for bloody discharge in frequency order are 'drinking brewed lotus root' and 'eating boiled chicken stuffed with root of bell-flower'. However, 'drinking brewed *Thujae orientalis Folium*' has the rationales.
6. The folk remedy for snake bite wounds that has the scientific grounds is 'sucking blood by a person without hurt in the mouth'. However, quite a lot of people apply alum or soy paste, which has no rationales.
7. The folk remedies for the bee sting in frequency order are 'after removing the sting, applying soy paste or sauce' and 'applying saliva'. No rationales for 'applying saliva' have been found.
8. The folk remedy for the dog bite wound that has the rationales is 'applying juice of leaves or stalks of *Xanthii Fructus*'. However, 85% of surveyed people use remedies that have no scientific grounds, such as 'applying burnt dog hair mixed with (sesame) oil' and 'applying soy paste or sauce'.

Various materials are used in folk remedies for first aid treatment as shown above. Some of the folk remedies have the rationales since their medicinal actions have been found. However, the medicinal actions of the majority have not been found, but only known that they are effective. Especially for the materials except botanical drugs, they are used without knowing the effects since their components and pharmacognosies have not been described in any literatur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ay be used for materials to educate the surveyed people or to consult them. Accordingly, the folk remedies that have the rationales are required to continue to study to find out the effects.

*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